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김 세 훈(Se-Hun Kim)***
심 효 정(Hyo-Jung Sim)***

〈 목 차 〉

I. 서 론	2. 세부추진 방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조직구성안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V.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추진 방향
II.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추진 실태	1. 기본 방향
1.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및 업무	2. 업무 내용
2. 지역대표도서관 추진 실태	3. 제도적 지원 방안
III.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 운영 방안	V. 결론 및 제언
1. 기본 방향	

초 록

본 연구는 개정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정책의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에 따라 재정, 인력, 정책 우선순위 등에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시·도에게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과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도서관 정책, 도서관법,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ways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ies, which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quality of library services in metropolitan regions. The field survey for this research, however, shows that many regional governments have difficulties to establish and/or run the Libraries and the difficulties come from their inexperience in the library service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it suggests standar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ies and specifies their services according to their roles and functions.

Keywords: Library Policy, Library Act, Regional Central Libraries, Public Library

* 이 논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과제 “지역대표도서관 기반 조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정책과제 2007-35, 김세훈, 심효정)의 내용을 요약·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shkim@kcti.re.kr)(제1저자)

*** 한국도서관협회 사업협력팀장(shjcap@paran.com)(공동저자)

• 접수일: 2008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8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3월 21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도서관 정책은 문화관광부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립되어 각 지역의 일반 공공도서관에 전달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에 관여해 왔으며, 지역 내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종합적 구상을 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지식정보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는 광역차원의 도서관 시책 수립과 시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혹은 지정) 운영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도는 현재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대표도서관 체제가 처음 도입, 운영되는 상황이라 「도서관법」에 그 역할과 업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운영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법률에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 시·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과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의의, 업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했으며, 이후 현재 추진 중인 각 시·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관련 16개 시·도의 추진 현지 방문 실태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문헌연구와 현지 추진·실태 조사를 통해 16개 시·도 지역대표도서관,

추진 실태,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지정 운영 방안,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등을 구체화시키고 지역대표도서관 표준 조직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도의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확립,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과 시·도와의 유기적 정책연계체계 강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내 지식정보서비스 체계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II.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추진 실태

1.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및 업무

「도서관법」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조항을 새로 만든 이유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정책주체로서 시·도가 공공도서관 정책에 대해 좀 더 책임성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김세훈 외, 2003: 102). 그동안 도서관서비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고, 도서관간 협력도 같은 관종 간에 협력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서관서비스의 균형적 제공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간 도서관 서비스 불균형 상황을 극복하고 여러 관종 간 협력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도 중심의 지역대표도서관 구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역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대학, 전문도서관 등 지역 내 모든 관종을 포함하는 도서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관종 내 혹은 관종 간 상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구상에 있어 현재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와 가장 적합한 예로 판단되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개별 공공도서관 업무를 「도서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주요 업무

구 분	내 용
국립중앙도서관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1호)

지역대표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공공도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표 1〉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주요업무는 도서관정책 지원 기능, 지원협력 기능, 자료보존 기능, 조사 연구 기능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¹⁾

첫째,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립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매년 시·도 지사가 수립·보고토록 되어 있어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를 도와 지역 내 도서관정책개발 및 집행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서관협력 및 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도의 도서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며, 지역의 도서관발전 장애요인 분석,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시·도 특성과 여건에 따른 도서관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별 도서관 시책에 따른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간 지식정보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도 내 도서관 사이의 협력 사업, 도서관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도서관정보화 지원, 시·도 내 도서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역 내 타 문화시설과의 연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중 또 하나의 비중 있는 업무는 바로 자료보존기능이다. 지역 내 공공도서관 자료 중 공동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지역대표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지식자원을 아카이빙 해 이용자에게 서비스해야 한다. 아카이빙 대상 자료는 개별 공공도서관 자료의 공동 보존자료, 지방자치단체 발행자료, 지역지식자원 등이 가능하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 검토가 있어왔다. 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펴낸 자료로는 국립중앙도서관, 「21세기에 있어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1995)이 있다.

넷째,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효과적 도서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유의 지식자원에 대한 DB를 개발·활용하여 지역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연구나 시·도 의정활동 지원, 지역 고유지식자원 DB개발, 지역 내 지식정보서비스 종합 실태 조사, 도서관관련 각종 통계 조사 등을 할 수 있다.²⁾

2. 지역대표도서관 추진 실태

「도서관법」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또는 지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16개 시·도를 현지 방문해 도서관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했다.³⁾ 인터뷰 대상은 도서관 담당 과장 및 실무 담당자였으며 광역자치단체별 인터뷰는 8월 27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진행했다.

지 역	기 간	인터뷰 대상
제주시청	8.27-29	도서관 담당 과장 및 직원
경상남/북도청, 대구시청, 울산시청, 부산시청	9.5-9.8	도서관 담당 과장 및 직원
충청남/북도청, 전라남/북도청, 대전시청, 광주시청	9.18-9.22	도서관 담당 과장 및 직원
서울시청, 인천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10.1-10.5	도서관 담당 과장 및 직원

인터뷰는 크게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행정 환경, 기준에 도서관과 관련하여 추진해 온 정책 및 사업, 현재 지역대표도서관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였다.

가. 추진 경과 및 정책 이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지정 추진은 「도서관법」이 개정된 2006년 10월경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7년 6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각·시도에 지역대표도서관 표준조례안을 배포하였으며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지역대표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 2) 초기 도서관법 개정 관련 연구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공공도서관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별도의 장이 아닌 공공도서관 관련 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광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김세훈 외, 「도서관및도서진흥법 개정안 연구」(2003)에 제시되어 있다. 이후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김세훈 외,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2007)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 3)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도서관 관련 정책을 별도로 수립,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시설정책의 차원에서 도서관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인터뷰 결과 지역대표도서관 정책에 대한 시·도 관계자들의 이해 정도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해 부족은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지정 운영과 관련한 일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⁴⁾ 도서관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나 현실적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시·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도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 도서관과 관련한 시·도의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도서관 관련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시·도는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웠다. 현재 도서관 관련 전담자를 두고 있는 시·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담당자 1인이 도서관 업무 외에 문화예술정책, 문화산업, 문화시설건립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맡고 있어 도서관 관련 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거나 타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업무 담당부처의 상황과 담당자의 업무 관심도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도서관 업무가 담당자의 주 업무가 아니더라도 담당자나 상위 직급자가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지역은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현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⁵⁾ 시·도 전반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인력, 재정 등 실행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개입 노력이나 지원책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다.

나. 지역대표도서관 등 추진 현황

(1) 일반현황

2007년 10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한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공공 도서관 수는 578개관이다(사립공공도서관 제외). 국립 공공도서관 578개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도서관은 349개관,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은 229개관으로 6:4 비율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더 많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총 6개 지역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특히 대전광역시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수가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도립사이버중앙도서관)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는 시·도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4) 여기에서 시·도관계자들의 견해는 인터뷰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의미한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는 도서관정책에 대한 관여가 드물었기 때문에 도서관 관련 의견에서 도서관업무 담당자와 담당과장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여기에서 상위 직급자는 도서관 혹은 문화시설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나 국장 등을 의미한다.

지역이다. 경기도에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많다. 대전광역시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2개관 밖에 없으며 나머지 14개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기초자치단체 소속관보다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이다. 인천광역시는 시립 도서관 3개관을 교육청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총 8개관이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이며, 위탁경비로 총 15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형태로 지출되며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로 사용된다. 대구광역시는 시가 건립한 8개 도서관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해 공공도서관 총 운영비인 200억원 중 약 40억원을 법적 요율에 따른 전출금 외에 추가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자체 예산 160억 원을 들여 교육청이 설립한 4개관과 위탁받은 시 설립 도서관 8개관 등 총 12개 공공도서관을 교육청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는 광역시 설립 도서관이 있으나 실제로 운영권이 교육청에 위탁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 설립 비율이 비교적 유사한 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먼저 부산광역시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 시 설립 도서관을 위탁받은 도서관이 있으나 정확한 수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총 운영비 160억원~170억원 중 부산광역시 법적 요율에 따른 전출금 이외에 20억~25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4개 도서관의 운영을 모두 교육청에 이관하였으며 광역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 없으며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도가 연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전라북도는 도 설립 도서관이 없고 다른 시·도와는 달리 대체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보다 규모가 크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자체 설립·운영 도서관이 없으며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역대표도서관의 추진 현황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설립·운영 목적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관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그 중에서 특히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에 있어 시·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이에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는지의 여부가 향후 지역대표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⁶⁾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협력관계 역시 <표 2>에서 보듯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도는 교육비특별회계에 따른 법적 전출금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료구입

6)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차원에서의 도서관서비스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아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 연구』(2007).

비 등은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지원되고 있어 이외의 협력관계는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설립 도서관을 교육청에 위탁한 시·도의 경우 위탁운영과 관련한 예산(인건비 제외 경상비)을 별도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청과 연계를 맺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 사이에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온 지역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부산광역시는 업무협력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은 부산시청에 협력관 2인을 파견해 두 행정기관 간 업무조율을 하고 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20~25억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계획하는 등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의 관계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원활한 편이다. 위 4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료구입비 등의 예산 지원에 한정된 부분적 협력체계를 갖고 있거나, 협력이 전무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표 2〉 시·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도서관 협력 관계

구 분	지 역	협력내용 및 협력 상황
협력원활	경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중앙도서관을 통한 정보화 및 상호대차 서비스 협력 · 자료구입비 지원(4.2억) · 공공도서관행사 연계 추진
	부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소속 도서관에 자료구입비, 리모델링, 운영비 등 지원(20~25억) · 행정교육협의회를 운영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장으로 지자체와 교육청간 업무협력체계 원활 · 교육청에서 협력관 2인을 시청에 파견하여 두 기관간 업무협력 지원 · 관종 구분 없는 사서연구회 모임 개최
	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도서관 예산지원(40억) · 시와 교육청 간 원활한 협조 체계 유지
	제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위원회 산하에 교육위원회가 편입되어 있어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권한 행사가 용이 · 자료구입비 지원(1.45억)
부분협력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등 지원(15억) · 관종 구분 없는 사서협의체 운영
	충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지원(3.15억)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동참
	충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지원(1.2억)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지원(60억)
	울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지원(10.5억)
	대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지원(2천)
	광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지원(0.98억)
	전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구입비 지원(4억)
협력없음	강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및 협력 연계 없음
	경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경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전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현황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유형은 〈표 3〉에서 보듯이 크게 시·도 소속 공공도서관 지정,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지정,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지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는 별도로 신규 건립하여 지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건립 기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한시적으로라도 위 세 유형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도 소속 공공도서관 지정 운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는 한밭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관장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표도서관장이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⁷⁾ 당연직 부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 준비를 완료했다. 광주광역시는 2007년 6월 ‘시장소속 하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조례 제5조 대표도서관인 무등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표 3〉 지역대표도서관 지정(계획) 현황

추진 방법	지 역	계획 연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계획 중 포함)	지정 현황
신규건립(5)	제 주	2007	· 우당도서관(광역자치단체)	완료
	인 천	2009	· 인천시립도서관(광역자치단체)	추진중
	서 울	2009	· 설립 추진중	”
	전 남	2010	· 목포공공도서관(교육청) · 설립 계획중	”
	충 남	2012	· 설립 계획중	”
지정(11)	경 기	2008	-	”
	대 전	2007	· 한밭도서관(광역자치단체)	완료
	광 주	2008	· 무등도서관(광역자치단체)	추진중
	부 산	2008	· 부산시민도서관(교육청)	”
	대 구	2008	· 대구중앙도서관(교육청)	”
	전 북	2008	-	”
	강 원	2008	-	”
	경 남	2008	-	”
	충 북	2008	-	”
	경 북	2008	-	”
	울 산	2008	-	”

2007년 11월 말 현재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완료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우당도서관은 현재 건립 중인 도립 한라도서관이

7)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해 신설된 기구로 시·도의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됨.

2008년 개관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상태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해 공모제 도입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원활한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 행정권한의 위임 등 제반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지정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 도서관협력망에서의 지역대표관 16개 가운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12개관을 차지한다. 대체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규모 면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을 크게 앞서 있으며, 이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부산시민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시민도서관 차원에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직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현재 도서관협력망에서의 지역대표관인 교육청 소속 대구중앙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역할에 따라 부가되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을 신규 건립하려는 경우는 기존 도서관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과 병행하여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08년 12월에 완공예정인 시립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인천시립도서관을 지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는 도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며, 이르면 2008년 중에 착공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완공 전까지는 현재 도서관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인 교육청 소속 목포공공도서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2007년 11월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지정 추진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는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을 완료했으나 그 이후 수행해야 할 역할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책정된 예산도 전무해 현재 실질적 업무를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립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새 도서관 건립이 완료되면 이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08년 6월 중에 개관 준비단이 7~8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이때부터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조직구성 및 업무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08년에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실질적 운영 가능여부는 현지 방문 실태 조사 결과 그리 밝지 않다. 대부분의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의 단계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2008년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이다. 기존 공공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적은 수의 인원충원으로는 법에서 규정한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전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단계적 시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조례 제정 현황

〈표 4〉와 같이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지역의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시·도가 2008년에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방서비스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의 장이 맡게 되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의 조례에서는 대표도서관 설치 근거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서비스 확대 및 지역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 규정했다.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설립된 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설립 이전까지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지정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 및 지정철회 절차 등이 조례에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이런 내용들이 기 제정된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역대표도서관이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수립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구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정된 조례에는 시·도 및 지역대표도서관이 도서관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사립·전문·대학도서관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책 추진 및 협력 업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표 4〉 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조례명	제정현황	공포일
광주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완료	2007. 6. 30
경기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완료	2007. 8. 6
전북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완료	2007. 11. 2
인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제정추진	-
대전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경북	경상북도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	-

III.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방안

1. 기본 방향

가. 설립 및 지정 운영 방향

지역대표도서관은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성격, 역할, 기능이 다르기에 원칙적으로는 신규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신규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다른 도서관을 지정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역대표도

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부추진 방향

가. 설립방안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이고 동시에 연구도서관의 기능이 있으며 시·도를 대표하는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립 후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도 중요하다.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후 도서관 장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보다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도서관 장서는 도서관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건립 이전에 장서수집 계획 및 실질적인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 내 도서관 전 관종을 포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타 관종과의 도서관협력체계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도서관이 건립되더라도 지역대표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도 차원의 도서관 실태 조사, 협력체계 구축 현황 분석, 관종 내 또는 관종 간 도서관 협력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지역 지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나. 지정 운영 방안

현 상황으로 볼 때 지역대표도서관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대표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현재 시·도립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시·도(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는 다른 공공도서관을 지정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시·도가 설립한 도서관이 있으나 운영권을 교육청에 위탁한 곳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지정하는 경우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지정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도서관협력망 체계에서 지역대표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도서관이 지정될 가능성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공공도서관(교육청 및 기초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새로이 공모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을 지정 운영하는 경우에 시·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을 지역대표도서관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초기에 지역대표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중요하다.⁸⁾

3. 조직구성안

아래〈그림 1〉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지역대표도서관의 표준 조직 및 업무안(이하 '조직안')으로 2007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도서관 관련 정책 입안 지원을 위해 도서관 정책과를 별도로 두고, 자료의 공동보존 업무와 관련해 자료보존과를, 광역차원 도서관 실태의 상시적 파악과 분석을 위해 조사연구과를, 지역주민서비스를 위해 정보서비스과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직안은 지역대표관이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 수립 지원 및 이와 관련한 조사 연구, 지원협력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서의 증가로 건물의 하중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면서 지역대표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자료 가운데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공동보존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 일로 부각되고 있어 자료보존과를 별도의 부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시·도 단체마다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관련 여건이 매우 다양해 관련 업무를 통합하면 조사연구과와 지원협력과는 도서관정책과로 통합할 수도 있어 인력 수급을 감안할 때 기존 6개과를 4개과로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도서관장					
도서관정책과	지원협력과	자료보존과	정보서비스과	조사연구과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서관 정책 개발 및 집행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업무지원 • 정책추진 및 점검·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협력 업무 • 도서관협력네트워크 시스템운영 • 도서관정보화지원 및 정보교육지원 • 지역도서관 및 도서관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 행정자료수집 • 지역분담수서 • 공동 보존 서고 운영 • 지역도서관의 주요정보지원 디지털아카이빙 • 보존관련 일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에 대한 열람봉사 • 상호대차 및 협동참고봉사 • 지역특성화 및 분담수서 • 소외지역 이동도서관운영 •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행·의정활동에 관한자료 제공 •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지역고유 지식자원DB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 홍보업무 • 시설관리

※ 출처: 김세훈 외.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61쪽 재구성

〈그림 1〉 지역대표도서관 조직안

8)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이나 지정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김세훈 외,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훈 외, 『지역대표도서관 기반조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IV.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가. 업무 성격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 차원에서 “도서관의 도서관” 기능을 갖는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은 국가도서관 행정체계에 있어 광역단위 거점 도서관으로의 성격도 가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앙 정부의 도서관 정책 시행과 관련해 주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시행하는 도서관정책에 있어 주 시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 및 지역도서관의 수요를 종합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수요 종합 모니터링 도서관’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나. 추진 방향

지역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에서 부여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른 조직과의 연계성 강화이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우선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과 같은 타 행정기관, 또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도서관, 교육청 및 학교, 대학, 전문도서관 등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도와 일상적 논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도서관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정책도서관으로 시·도와의 일상적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도서관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실질적으로 정책수립 및 시행 권한이 있는 시·도와 협력해야 한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은 일반 다른 도서관과 얼마나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업무를 다른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에 치중한다면,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는 초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의 차별화된 업무 개발 및 수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업무 내용

지역대표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그림 2>와 <표 5>에서 보듯이 정책수립 지원 업무, 다른 도서관에 대한 지원/협력 업무, 정보제공서비스 업무, 자료공동보존 업무, 조사연구 업무, 행정업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2> 지역대표도서관의 주요 업무

첫째,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여러 관종의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 차원에서 도서관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업무지원, 도서관 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업무, 도서관 건립 및 특성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지역 내 여러 관종의 도서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관종별 도서관, 즉 공공(어린이도서관, 문고 등 포함)·대학·학교·전문도서관과의 협력, 도서관협력 네트워크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내 다른 문화시설과의 연계·협력, 지역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도 고려해야하며 도서관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교육 등도 실시해야 한다.⁹⁾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일반 공공도서관 차별화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공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열람봉사에 주력하기보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광역차원의 지역자료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보존협력 업무도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시·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행정자료를 포함한 지역 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연계 아래 지역납본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검토해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9) 최근 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전체 도서관 정책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도 지역대표도서관이 검토하여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 방안』. 2006. 국립중앙도서관.『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7.

공동보존서고 운영, 지역도서관의 주요정보자원 디지털아카이빙 등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도서관들의 발전을 위해 조사연구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시·도의 행·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도서관활동에 대한 연구지원, 지역의 고유지식자원을 개발해 DB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일상적인 행정지원 업무와 지역의 도서관 정책 홍보 및 각종 도서관 시설관리 등의 업무도 해야 한다.

〈표 5〉 지역대표도서관의 주요 업무 내용

영 역	업 무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차원 도서관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업무 지원 - 정책추진, 점검, 평가 업무 지원 - 건립 및 특성화 사업 지원
지원/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문고, 어린이도서관 등 포함),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협력 - 도서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 지역 내 다른 문화시설과의 연계, 협력 지원 - 도서관정보화 지원 및 정보교육지원 - 도서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협력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에 대한 열람봉사 - 시·도 차원의 지역정보 통합서비스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 디지털도서관서비스
자료공동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 수집 - 지역납본센터 - 공동보존서고 운영 - 지역도서관의 주요정보 디지털아카이브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행·의정 활동에 대한 자료 제공 - 지역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 지역고유지식자원DB개발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 홍보업무 - 시설관리

3. 제도적 지원 방안

가. 예산 지원

지역대표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여타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자료의 공동보존 기능까지 맡고 있어 작은 규모로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도서관의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건립예산 지원의 경우, 현재 공공도서관 지원 시 적용되는 국고 보조 비율을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해 더욱 필요한 것은 운영예산이다. 도서관의 건립이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가운데 지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다른 도서관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광역차원의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집행, 이와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지원 혹은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른 도서관에 대한 강제권한보다 협력 유도 또는 지원의 역할이 크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법에 의해 부여된 강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타 도서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지역대표도서관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나. 인력 충원

지역대표도서관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더불어 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인력의 문제는 크게 관장과 직원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관장과 관련해서는 광역차원의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효과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대표도서관장의 고위 직급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대표도서관장은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수준(3급~4급)으로 관장의 직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공도서관 관장 직급은 대부분 5급~6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상 국장급 이상인 3급 이상의 직급을 공공도서관장 직급으로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수준의 직급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직원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 직원 규모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업무 영역에 최소인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도서관협력망 체계에서 지역대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정독도서관과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의 직원 규모는 60~70명 내외이다. 현재 직원규모 기준은 대부분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에는 직원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도서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특성상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 사서직을 포함한 전문직의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도서관법」에 따라 향후 보다 개선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차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마련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운영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고찰하였고, 각 시·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관련 16개 시·도를 현지 방문해 도서관 담당 과장 및 실무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 정책이 지역차원에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도서관정책의 기본 지향에 근거한 것인데 「도서관법」이 시행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추진이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법」에서 규정된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나 재정 등을 처음부터 완벽히 확보해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업무는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초기에는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 각 시·도마다 도서관정책 관련 여건이 상이하고, 그동안 직접적으로 도서관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에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시·도가 도서관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성공 여부는 이를 직접적으로 추진할 시·도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이들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당초 기획과 달리 과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도서관 정책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차원의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집행과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도서관정책 및 행정체계 재편도 관련되어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정 운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교육청, 관종별 도서관 협의체 등과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다섯째, 도서관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차원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논의는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토되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에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의 도서관 서비

스와 관련해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개선하고자 했던 사항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지역대표도서관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이 설립과 운영을 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환경이나 정책 여건을 조성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축경기도립중앙도서관 운영 연구. 경기 : 경기도립중앙도서관. 2006.
- _____ . 일본공공도서관 연수보고서. 경기 : 경기도립중앙도서관. 2006.
- 곽동철, 윤정옥, 심경.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운영 및 국가대출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편]. 2006.
- 곽철완. “미국 주 도서관 서비스의 분석.” 한국문현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pp.203-218.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편] 1995.
- _____ . 2006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편] 2006.
- _____ .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 방안.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 _____ .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 _____ .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현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 김민영. 공공도서관 지방기록물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01.
- 김세훈, 윤희윤, 김재광, 이용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김세훈, 이용훈, 정현태.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김세훈, 심효정. 지역대표도서관 기반조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 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7.
-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 연구, 2007. 12.
- 배순자, 김병재. “道 광역대표도서관 건립계획에 관한 고찰.” 한국문현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6), pp.59-78.
- 윤희윤.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한국문현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pp.31-54.
- 한국도서관협회. 2007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